

성모님의 2001년 2월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은총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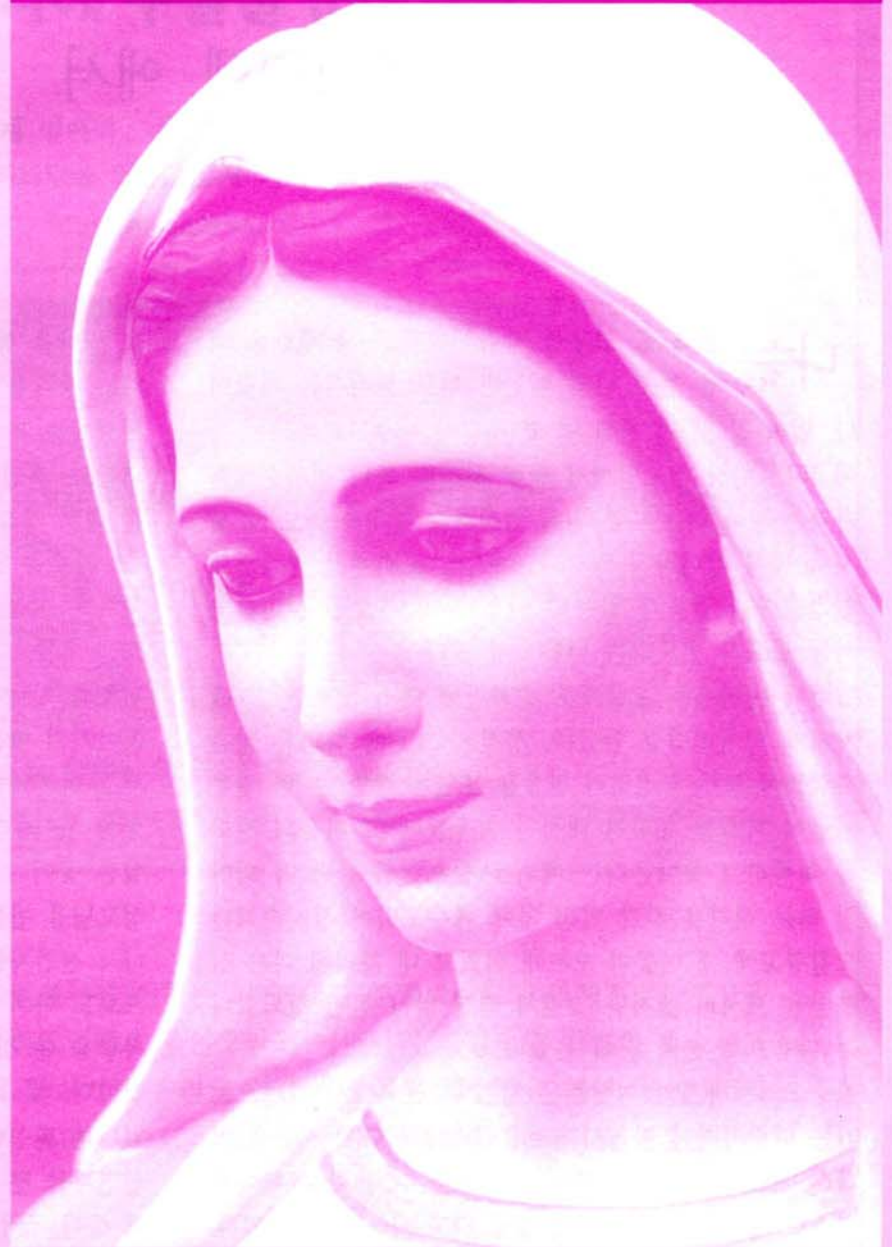
하느님 아버지 !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겸손한 종이신 성모님과 함께 청하오니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사랑의 영을 보내주소서. 당신의 영을 종교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또한 전 세계를 통하여, 연구 및 기술 그리고 정치 경제의 책임을 맡고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시며 모든 증오와 나쁜 감정들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영을 모든 이들의 마음에 보내 주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당신의 부성적(父性的)인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어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께 스스로를 열게되고 그리하여 당신을 우리 삶의 가장 첫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게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현존과 사랑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하여 주소서.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여기에서 18년 동안 우리와 현존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하오니 선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뿐만아니라 모든 순례자들과 모든 기도 그룹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그들 모두가 성모님께 충실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냉담을 하고있거나 또는 성모님께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메주고리에

Medjugorje

제3호

March, 2001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저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마음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모든 악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의 영을 충만히 주시어 우리 모두를 움직여 주소서. 당신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청하옵나이다 아멘. 1999년 5월 27일 / 슬라브코 신부님의 글

메주고리에 에서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나는 원래 좀 고루한 사람이어서 누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 떠들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다. 벌써 칠 팔 년 전에 몇 몇 사람이 메주고리에라는 곳에 10년 이상 성모님께서 발현 하신다 하니 성지순례를 가자는 말에 나는 다른 일이 겹친다는 핑계를 대고 그 성지 순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직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발표가 없는데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이라고 서둘 필요가 있는냐는 마음에서 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묘하게도 순례단에 끼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실은 그곳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회개를 통하여 내적인 치유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가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단 모집광고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되었고 내 자리에 다른 신부님을 모시려 했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 한편 잘되었다는 마음으로 순례 길에 올랐다.

메주고리에까지의 여행길은 길었다.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시간이 일곱시간 반, 런던에서 다섯 시간을 기다려 크로에이시아 스플릿 공항으로, 스플릿 공항에서 버스로 세시간 동안 산비탈 길을 타고 가는 먼 길이었다. 이제 이곳에서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일정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온 먼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메주고리에에는 과거 20년 동안 성모님께서 계속 발현하시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 고해, 성체, 성서, 단식을 통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다. 성모님은 여섯 명의 선견자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마을의 전체 분위기를 통해 성모님을 만나뵙고

그 만남을 통해 각자는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세상에는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이 좋지 않아 괴롭고, 혼인이, 가정이 파괴되어 괴롭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 괴롭고, 사업에 실패하여 괴롭고, 괴로운 일은 어디에나 깔려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괴로운 이들,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기에 괴로운 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가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통해 치유받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라도 안아주시고 아픈데를 어루만져 주시고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모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라고 부르고 싶은 곳이다. 물론 이곳에 오는 모든이가 선견자들처럼 성모님을 뵈는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선 선견자들을 만나서 선견자들이 성모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성모님을 뵈 것처럼 기뻐한다. 성모님을 뵈 사람을 본 것으로 성모님을 뵈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견자들은 성모님을 실제로 만나 뵈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선견자들 뿐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성모님을 만나뵙게 해 준다. 끊임없이 바쳐지는 목주의 기도를 통하여, 발현산의 험한 돌길, 그 산을 향해 가는 발 사잇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모님을 만나 뵙게 해 준다. 가난한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성모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성모님을 만나 뵈 사람도 있다. 중천에 떠 있는 해를 쳐다보면서, 그 해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성모님을 만나 뵈 온이도 있다. 또 그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을 통해 사람들은 성모님을 만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순례단의 동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모님을

만나 뵙는다. 해와 달과 구름이 산과 돌밭길이 모두 성모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성모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향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랜 전통을 살려 드리는 미사는 목주의 기도 10단을 먼저 바치고 시작되며 미사 끝에는 칠고 목주기도를 바쳐 미사를 끝내고 다시 이어서 목주의 기도 5단을 바치는 것으로 다섯 시에 시작한 예절이 일곱시에 끝을 맺어야 저녁을 먹으러 가는 동네사람들의 신심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모님을 만난다. 금요일에는 미사 후에 목주의 기도 오단 대신 성체현시를 하여 한시간에 걸친 성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다. 대낮에 성당엘 가도 많은 사람들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러고 보면, 메주고리에는 성모님이 운영하시는 커다란 피정 마을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모님이 지도하시는 피정이기에 어디에서나 그분을 만나뵈울 수 있는 것이며 좋은 일을 통해서 성모님을 뵈게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그런 일이나 마음 상하는 일을 통해서도

성모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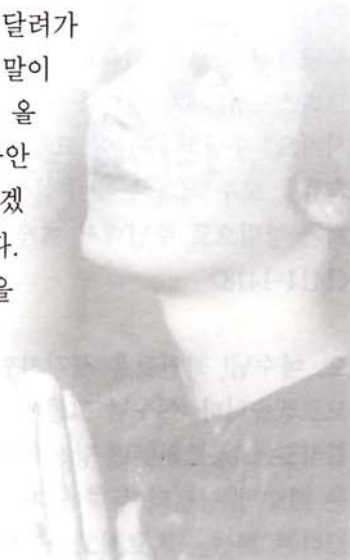
이 메주고리에이다. 속상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성모님에게 달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니 말이다.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올 때는 적어도 한 한달 동안 성모님 품에 안겨 자도 되겠느냐는 청을 드리고 싶다. 그럴수만 있다면 한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요청을 드려도 어머니는 거절을 못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이신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한사람 한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초대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너희들 없이는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로서 매일 매일 하느님께 가까이 오너라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

성모님의 메시지를 땀끝까지 전입시다.

메주고리에 Website, <http://www.medjugorije.hr> 돕기 평화의 모후센터 U.S.A. 에서 주관한 2월 17일자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단에 지도신부로 함께 하셨던 박창득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고 있는 <http://www.medjugorije.hr> 의 Webmaster와 총 책임자인 Fr. Colombo를 만나 논의한 끝에 박신부님이 운영하고 있는 www.Amote.com site와 <http://www.medjugorije.hr>를 Link 하는 동시에 [Amote.com](http://www.Amote.com)의 prayeroon을 통해 들어오는 기도 요청을 <http://www.medjugorije.hr>로 송부하여 선견자인 Vicka(비스카)에게 전달함으로써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봉헌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아직은 최소한도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medjugorije.hr](http://www.medjugorije.hr) site를 도와주기로 하여 순례객들이 봉헌한 미사예물과 헌금을 합하여 필요한 \$6,000중 현재 \$3,135이 확보되었습니다.

<http://www.medjugorije.hr>가 필요로 하고 있는 도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erver가 down이 될 경우 website전체가 완전히 down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는 website를 돕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6000불 중 현재 부족액은 2,865불 입니다. 도우실 분은 평화의 모후 센터 U.S.A.나 박창득 신부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득 신부

267 Central Ave. Orange, NJ 07050
Tel.(973)673-6722

Queen of Peace Center U.S.A.

남홍익 그레고리오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티 없으신 마리아께 대한 사랑

“성녀 파우스티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순수한 사랑의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우스티나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 대축일을 준비하였다. 파우스티나는 그 축일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 묵상하고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였다. 그러면서 마음은 완전히 성모님과 일치해 있었다. 파우스티나는 수녀원에서 공적으로 바치는 9일기도 외에도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9일 동안 하루에 수 천번씩 성모송을 바치며 찬미하였다. 그러한 9일기도는 그녀에게 있어 세번째였다. 앞서 두 번은 일상적인 수도 생활을 할 때였고 또 한번은 요양소에 있을 때였다. 이러한 기도를 바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했지만 그것으로 티없으신 성모님을 기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하느님께서서는 축일 전날인 12월 7일 점심 때 파우스티나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면서 파우스티나 자신에 관한 일들을 알려 주셨다. 즉 주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하여 파우스티나는 오랫동안 하느님의 현존 속에 묻혀있었다. 그리고 12월 8일에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 영성체를 하기 전에 나는 무한히 아름답고 복되신 천상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딸아, 하느님의 명에 의해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너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너도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딸이 되기를 바란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나아가 하느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세 가지 덕을 실천하여라. 첫째의 덕은 겸손, 둘째의 덕은 순결, 그리고 셋째의 덕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다. 너는 내 딸로서 특별히 이러한 덕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성심 가까이로 나를 끌어 안으시더니 사라지셨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놀랍게도

내 마음은 이 세가지 덕에 끌리고 있었다. 나는 이 덕을 충실하게 실천하게 되었고 내 마음 속 깊이 새겼다. 이 날은 나에게 중요한 날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끊임없는 묵상에 잠겨 있었다. 이 은총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더욱 더 나로 하여금 묵상에 잠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이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을 잊고 하느님께 대한 새로운 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 나의 주님! 제 영혼은 너무도 비참한데 어떻게 이토록 큰 은총을 베푸십니까? 주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저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존재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미소한 존재이기에 더욱 기쁩니다. 오!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님,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님의 정배로서 주님을 닮으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치욕의 외투를 제게 씌워 주십시오. 오, 그리스도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주님의 수난이 모두 제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슬픔을 모두 제게 부어 주십시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414-1418>

오, 예수님! 죄인들을 생각하면 당신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회개와 보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웠던 당신의 수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크나큰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오로지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심이여, 희생제물로 성체안에 숨어 계시는 주님처럼 저의 고통도 제 육신 안에 숨겨 주십시오. 오, 예수님! 살아

있는 희생의 제물, 당신께 흠족한 제물이 되도록 저를 당신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 순간 죄인들을 위해 보속하고 싶습니다. 이 희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순수하며 당신의 마음을 흠족하게 해 드리는 순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 창조주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선 자체이신 당신께 의탁합니다.

“모든 영혼들이여,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908>”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신심

예수님께서서는 이 피정에서 하느님 자비심의 신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주셨다.

“내 딸아, 사람들이 나의 자비심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킬 때, 그것은 단지 내 자비에 대한 신뢰와는 구별된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게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 후 첫 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삼고, 자비의 행동을 보여라. 자비의 신심으로 축일을 장엄하게 거행하고 내 모습이 그려진 상(像)을 공경하여라. 나는 이상을 통해 많은 은총을 내린다. 그리고 이 상은 내 자비를 상기시킬 것이다.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742>

피정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1936년 10월 25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파우스티나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미사 때, 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불길에 휩싸이면서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열망에 불탔다. 나는 이글이글 타는 것 같았다. 나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악에 대항해서 자비라는 무기로 싸울 것이다. 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갈 것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먼저 기도와 희생

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느님 자비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의 성인들도 주님의 자비에 신뢰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일깨우고 이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 <745>

파우스티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사랑의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고통, 경멸, 조롱, 박해, 모욕의 길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임을 알았다.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오! 나의 힘이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예수님께만 모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 신뢰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746 참조>”

봉헌의 기도

하느님과 영혼들, 하늘과 땅, 모든 천사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하늘의 모든 천신들 앞에서 저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죄인들의 회개, 특히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오늘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승복하고, 죄인들이 겪는 고통과 공포와 불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얻는 모든 위로를 그들을 위해 바칩니다. 죄인들을 위해 미사, 영성체, 참회, 고행, 기도 등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는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 하느님! 이로써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보속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자비의 바다에 저의 모든 희망을 두겠습니다. 주 하느님, 제가 제 힘을 믿고서 이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여 이 봉헌을 하나이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침으로써 매일 이 봉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 나오는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934년 3월 29일 성목요일 미사 중에
성체성사의 S.M. 파우스티나 <309>

그렇다면 저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기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저의 가장 큰 기쁨을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제 갈길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글은 하느님께 일생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한 수녀의 비통한 이야기로 보스니아-헤스체고비나를 파괴한 전쟁의 참사를 생생히 그리고 있다. 전쟁이 빚어낸 엄청난 참상은 단지 인종적인 차이나 종교적인 갈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한낱 전쟁의 도구에 불과했다. 모든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탐욕과 권력과 오만이 빚어낸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 역시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어 온 일련의 사건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탄은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을 공격해 볼 작정으로 하느님의 배우자로 봉헌된 삶을 사는 수녀들을 골라내었다. 그 배우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기도와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기막힌 사연들 중 한 수녀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친다. 그녀는 강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그 일을 당한 그녀의 반응은 수녀원의 원장 수녀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편지는 단지 그 내용을 일부 명확하게 하거나 그 수녀와 수녀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집되었을 뿐이다. 이 편지는 또한 전쟁이 내포한 극도의 잔혹함을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느님께 대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 대하여 완전한 회심을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메주고리에 메시지에 부응하는 완전무결한 응답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저는 세르비아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수련 수녀들 중의 한 사람이며 동료 수녀들과 자신이 당한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서원했을 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서약한 하느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비극은 한 여자로서 치욕을 당하였거나 또는 제가 택한 삶과 제 성소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큰 모욕을 입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저의 신성하신 배우자로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의 불가사의한 뜻의 한 부분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저의 믿음 속 깊은 곳에 어떻게 새겨 넣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입니다.

그 일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저는 버나노스(Bernanos) 가르멜회 수도사들의 대화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순교자로 죽을 수 있게 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제말을 그대로 믿어주셨나 봅니다.

저는 오늘 암담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계획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나의 인생계획 또 하나를 추적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소녀시절 일기장에 “그 어느것도 나의 것은 아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라고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그사람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밝아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머리속에 떠오른 것은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에 찬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몹시 괴로운 갈등이 있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가기 위하여 세워놓은 바로 그 목표를 망쳐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낯선 길을 따라 나를 어떤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시려는지? 라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으나 기진맥진이 되어있었습니다. 동료 수녀 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저도 옷을 추슬러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녀원 옆에 있는 수도원의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호를 긋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미사

성가를 음송 하였습니다. “이 시간 골고타 산에서는 참 되신 파스카의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계신다네”

그렇다면 원장 수녀님, 제 생명을 바치겠다고 천 번이나 맹세한 그 주님의 고통과 비교해 볼 때 제가 견디어 내야 할 고통과 모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당신께서 틀림없이 제 편에 계시다는 것 외에는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다른 도움도 없사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저는 천천히 기도 드렸습니다.

원장 수녀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신의 위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 당한 수백만 동포들의 대열에 저 자신도 끼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원치 않았던 모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굴욕을 다른 사람들의 굴욕과 함께 묶어 이를 불명의 강간범인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뜻에서 봉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양국간의 평화를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이를 바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시겠지만 혹시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도록 부탁드리더라도 저를 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는 우리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만행을 가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 살해당한 저의 두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제게 닥쳐온 괴로움과 고통이 이렇게 극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빼만 앙상하게 남아 보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우리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18세 되는 젊은 처녀 하나가 저를 보고 “당신은 치욕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처녀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것은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나큰 고충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저 자신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안이(安易)하게 살아왔었다는 것이 거의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만 이제는 저도 그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육체는 갈가리 찢기고 영혼까지 약탈당했던 이름 모르는 수많은 우리 이웃 여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이 치욕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어 지금의 저와 같은 모습의 수도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악의 세력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제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저의 가난한 가슴에서 우리나라 오는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이제부터는 믿어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이며 믿음으로 강해진 제 복종이 그들에게 본보기까지는 못될지라도 그들의 도덕적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굴욕당한 이 백성들을 구원과 자유가 동트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염치없는 추정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의 의도가 진실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슬라브 문학 교수 한 분이 제게 알려서 - 미슬로비치(Alesej Mislovic)가 쓴 다음과 같은 시의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너는 빛 있는 쪽에서 살도록 선택받았으니 죽어서는 안된다.” 그날 밤 제가 세르비아 인들에게 강간당하고 절망에 빠져

죽게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 영혼에게는 향유 같았던 그 시의 구절을 마음속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으며 지나간 일이 마치 하나의 악몽처럼 여겨집니다.

원장 수녀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고맙게도 당신께서 저에게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태중에 강제로 심어진 그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계셨을 때 즉각 회답이 없었던 탓으로 원장님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할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



고 원장 수녀님께서 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미가 되면 그 아기는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닌 제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 아기는 비록 제가 바라거나 원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식물을 그 뿌리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은 신비로운 손길이 그것을 뿌려놓은 바로 그곳에서 자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너무도 잘 해주신 수녀원으로부터는 이제 바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며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신 동료 수녀님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특히 난처한 질문들을 삼가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기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저의 가장 큰 기쁨을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제 갈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인들이 일할 때에 걸치는 낡은 앞치마와 나막신을 다시 신고 저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 산림지대에 있는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하러 다니며 가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파괴하는 중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태어날 제 아이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것만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폭력에 의해 잉태되었지만 이 아이는 용서야말로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독특한 고귀함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여인에게 범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때문에 인생과 신앙의 소명을 송두리째 파괴당한 이 이야기에서 메주고리에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의 바로 그 핵심을 발견한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산다는 것은 천 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다.

.....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마태오복음 27,46-

<웨인와의블의 '메주고리에 3편 추수' 중에서>

여정

당신께 가는 길엔
사랑과 기쁨의 꽃밭을 지나갑니다
나는 그 사랑의 향기에 취해
당신께로 갑니다.

당신께 가는 길엔
고통과 슬픔의 가시밭을 지나갑니다
나는 찢기고 굼히는 아픔을 지나
당신께로 갑니다.

당신께 가는 길엔
희망과 꿈의 언덕을 지나갑니다
나는 한없는 기쁨에 젖어
당신께로 갑니다.

당신께 가는 길엔
절망과 고독의 강을 지나갑니다
나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당신께로 갑니다.

이제 지친 삶의 여정을 끝내고
당신앞에 서니
오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최혜숙 세실리아



의학 실험

국민들이 바친 세금으로 경영되는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는 소위 말하는 “태아조직” 상인들, 즉 죽인 아이들의 몸을 잘라서 판매하는 장사들과 거래하고 있다. 수많은 사립재단에서는 물론이고, NIH 같은 국립 재단에서도 의학실험 이라는 미명으로 그런 무서운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9일, 국회 상임부 공청회 (House Commerce Committee Hearing)가 열렸고, 거기 나온 증인들의 소름끼치는 증언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공포에 질렸다. “싱싱한 조직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 나온 아이의 흉곽을 쪼개어 피를 쏟아버립니다.... “태아실험을 주장하는 한 증인은 오히려 흥분하며, “엄연히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있고, 태아 조직으로 실험하라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대어주며 권장하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죽이든, 조직을 어디서 구하든, 태아조직을 팔아서 누가 돈을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나?” 고 대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은 서서히 말살되어 온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시켰을 때 사람들의 양심은 무디어졌고, 태아실험에 과학이라는 명칭을 달아주었을 때 사람들의 양심은 질식을 당했으며, 죽인 아이들의 몸을 잘라서 정가를 붙이고 매매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완전히 말살되어버린 것이다.

부분출생 낙태를 불법화시키려는 법안이 상원의원회와 하원의원회에서 몇 번이나 통과되었으나, 클린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여전히 합법적으로 부분출생 낙태가 만연하다. 그리고 태아조직 상인들에게는 부분출생 낙태로 죽인 아이들의 몸이 그들에게는 인기상품이다.

다른 낙태 (D&C, D&E)는 자궁 내에서 아이들의 사지를 가위로 찢르고 머리를 부숴 버린 후 하나씩 끄집어내어 쓰레기로 내버리지만, 부분출생 낙태는 뱃속에서 다 큰 아이들을 가위로 찢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의 몸 전체를 자궁 바깥으로 빼내고 머리만 미처 나오지 않았을 때, 끝이 둔한 가위를 아이의 뒤통수에 쏘서 넣고, 가위질로 두 개골에 뚫은 구멍을 넓혀서 빨대기를 집어넣고 뇌를 빨아내어 죽이는 방법이다. 상처 없는 (intact) 태아조직을 구

하는 사람들에게는 황재인가?

청구서에 적힌 가격표를 대강 읽어보자.

간 (임신 8 주 이상) - \$150.00	(많이 조각이 난 간은 30% 할인)
간 (임신 8 주 이하) - \$125.00	(많이 조각이 난 간은 30% 할인)
비장 (임신 8 주 이상) - \$75.00	
비장 (임신 8 주 이하) - \$50.00	
취장 (임신 8 주 이상) - \$100.00	
취장 (임신 8 주 이하) - \$75.00	
흉선 - \$75.00	
내장 - \$50.00	
콩팥 - \$125.00	
사지 - \$150.00	
뇌 (임신 8 주 이상) - \$999.00	(많이 조각이 난 것은 30% 할인)
뇌하수체 - \$300.00	
골수 - \$350.00	
귀 - \$75.00	
눈 - \$75.00	(한쪽 눈만 있을 때는 40% 할인)
피부 - \$100.00	
폐, 심장 - \$150.00	
태 - \$600.00	
몸통 (사지가 잘려나갔거나 붙어있음) - \$500.00	
척추 - \$325.00	

“Prices in effect through December 31 1999” “Our company also offers incentives such as volume discounts and free body parts for high-volume customers.”

아이가 한 명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정부에서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중국에서는 죽인 아이들을 요리해 먹고, 병

에 넣어서 별미용으로 사고 파는 일이 허다하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미국사람들은 그런 중국사람들보다 덜 미개인들인가? 덜 야만인들인가? 의학실험이라는 미명하에 무죄한 인간의 피를 얼마나 손에 묻힐 것인가?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브랜다 쉐퍼(Brenda Pratt Shafer)는 어느 날 낙태시술소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브랜다는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열렬한 “선택의 자유파(Pro-Choice)”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낙태시술소에 일하러 갔다. 브랜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의사 곁에 서서 부분출생 낙태(Partial Birth Abortion)를 시술하는 것을 보조했다. 초음파를 통하여 텔레비전 스크린에 보이는 아기의 심장은 쿵다 쿵다 뛰고 있었다. 의사는 아기의 두 다리를 하나씩 잡아서 엄마 몸밖으로 끄집어냈다. 아기의 엉덩이가 나오고, 허리, 배, 두 팔도 나왔다. 아기의 머리만 미처 나오지 않았다. 아기는 움직여 대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은 주먹을 꼭 쥐고 있고, 다리를 차고 있었다. 그 때 의사가 가위로 아기의 뒤통수를 뚫었다. 아기는 갑자기 몸을 비틀며 경련을 하더니 잠잠해졌다. 의사는 가위질을 하여 아기 두개골에 뚫은 구멍을 넓혔다. 그런 다음 고성능의 전기빨대기를 그 구멍 안에 넣어 아기의 뇌를 빨아냈다. 아기의 몸은 완전히 축 쳐졌다. 죽은 아기가 나왔다. 잊혀지지 않는 그 아기의 얼굴이 아직도 나를 따라다닌다.”

부분출생낙태와 아동살인의 차이는 오직 3인치이다.

영적 지매님들의 신앙 체험담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신 후 지내시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중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시도록 초대합니다.

<원고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침묵의 귀중함

침묵은 양선합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길 때
바로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치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바로 침묵은 자비입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불평없이 고통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트는 것을 기다릴 때
바로 침묵은 인내입니다.

침묵은 겸손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느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춰졌을 때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떠한 내버려 둘 때
바로 침묵은 겸손입니다.

침묵은 신앙입니다.

그분이 행하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에 있기위해 세상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그분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바로 침묵은 신앙입니다.

침묵은 흠승입니다.

왜? 라고 묻지않고 십자가를 포용할 때
바로 침묵은 흠승입니다.

< 토마스 머튼 >



태아 수술

1999년 12월 타임즈 잡지에 나온 Sara Marie Switzer의 사진이다. 임신 6개월된 사라가 척추이열 수술을 받는 모습이다. 수술을 받고 두 달 후에 태어났다. 아래 사진은 Samuel Armas 사무엘 아마스가 수술을 받을 때의 사진이다. 사무엘이 손을 자궁 밖을 내밀더니, 집게손가락으로 고무장갑 낀 Dr. Brunner의 손가락을 누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놀람과 경악과 환희를 안겨준다. 사무엘은 수술을 받고 4개월 후에 태어났다.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척추이열은 임신 1개월 때 나타나는데, 척추 한 부분에 장애가 생겨서 척추액이 흘러나오는데, 수술을 앓고 태어나면 수두(뇌에 물이 고임), 신체 마비, 다른 불구현상을 겪게 된다. 천명 중 한 두 명의 아이들이 척추이열을 가지고 있다. 엄마의 영양부족, 특히 Folic Acid의 부족이 그 주원인이다.

1982년 초기에 태아수술에 대한 밝은 전망이 보도된 후, 1997년도 Nashville에 있는 Vanderbilt 의대에서 태아수술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77명의 태아를 수술했다. 태아수술은 다른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Children's

Hospital, 샌프란시스코 U. of California 에도 있으며, U. of North Carolina 는 태아수술 팀을 준비중이다. 이 태아수술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영화나 소설에서



나 보던 컴퓨터 이미지 기술을 병합하여, 간단하고도 안전하게 수술한다. 태아의 다른 질환들도 수술이 곧 가능할 것이라는 큰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눈부시게 진보된 현대 의학기술은, 고통 당하며 죽어 가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안겨주는 의사들의 사명을 위해 큰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란 기술을 쓰는 자의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윤리도덕과 정의롭게 형성된 양심에 의한 기술 사용이 아니면,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불을 들고 장난하듯, 자신과 사회에게 파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임신부에게 초음파 사진을 찍을 때는 “추적하여 죽이자”, “찾아내서 없애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아이를 죽이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척추 이열을 발견했을 때, 90%의 아이들은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태아수술이 가능하게 되면, 그 때는 “찾아내서 치유하자”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문화가 재생할 것이다.

+ 찬미 예수님, 성모님

메주고리에 가족들께
안녕하세요? 성모님의 은혜로 창간된 소식지가 3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식지로 변함없이 발간되어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소식지에 도움이 될만한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홍익 그레고리오 -



태아들의 십자가의 길

주님, 무죄하면서도 당신처럼 말없이 죽어간 많은 태아들을 기억하며 당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코자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이기심과 사랑의 부족으로 인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아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들에게는 영원한 천상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말없이 죽어간 태아들에 대한 보석의 기도가 되게 하시어 앞으로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이 하나라도 더 다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1처 : 예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과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제2처 :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태아의 존귀함을 지니고 있는 깨끗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저를 저주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엄마 아빠는 저를 없애버리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당신의 도움만을 청할 뿐입니다. 당신만이 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

이키실 수 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제3처 : 예수, 기진하여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사랑하시고 원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원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당신은 저를 실수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고 귀하에 여기시듯이 엄마 아빠도 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해 주소서.



제4처 : 예수와 성모, 서로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눈물지며 함께 고통을 나누신 성모 마리아여, 저를 위해 아드님께 빌어주소서. 제게는 저를 위해 울어줄 어머니도 없답니다. 제 어머니는 아마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도 못한 분인가 봅니다. 제 어머니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무서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모님,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5처 :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는 오로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바랍니다. 제가 갇혀있는 이 암흑 속에는 당신 외에는 시몬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것을 당신

게 말기오니 저의 진실한 시므온이시여 제게 오소서.



제 6 처 : 성녀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 당신은 모든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제게 주님, 베로니카를 보내주소서. 위로해 주십시오. 애절한 이 기도를 들으사 제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불행하고도 힘없는 제 처지를 살피주소서.



제 7 처 : 기력이 쇠하신 예수, 두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성요셉이여, 제 아빠를 도우시어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제 아빠도 당신을 닮게 하소서. 작아서 저를 없애기 쉽다면 저도 빨리 무력무력 크렵니다. 저는 결코 속세적인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건만 어쩌서 엄마 아빠에겐 그리도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요셉이여, 제 아빠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제 8 처 : 예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심에 저를 맡길 뿐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위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무도 이제는 저의 죽음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제 엄마 아빠의 그 무서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만은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제 9 처 : 예수 세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저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펼치는 못된 장난으로 인해 저는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들이 설 자리는 있어도 이 작은 제가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니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도 좁은 것입니까?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게도 설 자리를 허락해 주소서.



제 10 처 : 악당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하였음을 묵상 합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최후의 순간까지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제 곧 제 목숨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곧 날카로운 집게가 벌거벗은 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낼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 괴로움을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제 11 처 : 악당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음을 묵상합시다.

주님, 당신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저의 이 연한 몸도 불안하고 초조해 하던 엄마의 뱃속에서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의사는 조각낸 제 몸을 하나 하나 확인하겠지요. 혹시라도 제 작은 부분이나마 남아서 엄마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주님, 저들을 깨우쳐 주소서. 저는 엄마를 해치려는 침입자가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야할 길이라면 저도 당신처럼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제 12 처 :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잊지 마옵소서. 당신과 함께 저도 영원한 낙원에 들게 하여 주소서. 그 옛날 우도에게 하신 그 따뜻한 말씀을 제게도 들려 주소서. 주님, 제 엄마 아빠에게 당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 13 처 : 예수의 성시를 십자가에서 내리움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은 죽은 후에도 사랑하시는 어머니 품에 안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사랑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부럽습니다. 주님, 저는 이대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한번 만이라도 엄마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 볼 수 없단 말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비닐주머니, 그 더러운 쓰레기통이라니요. 주님, 당신의 팔을 벌려주소서. 오로지 당신의 품속에 안기고 싶습니다. 제 엄마 아빠를 용서주소서.



제 14 처 :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내 무덤은 불구덩이입니다. 제 모든 것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소서. 사랑하는 제 엄마 아빠가 이젠 더 이상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제가 세상의 빛도 못보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마지막 태아가 되게하여 주소서.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 수원교구 교육국 중에서 발췌〉

낙태를 위한 보속

1937년 9월 16일, 성녀 파우스티나는 또 다른 고통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기록하였다.

오늘 나는 성체 대전에서 성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저녁 8시쯤에 견딜 수 없도록 심한 통증을 느껴 침대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세 시간 동안이나 고통에 휩싸였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삼킨 것은 모두 토해냈다. 고통 때문에 이따금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계세마니 동산에서 겪으신 당신의 고통에 참여케 해 주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살해당하는 영혼들을 위해 보속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세 번이나 겪었다.

밤 11시가 되자 고통이 멈추었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심한 피로를 느꼈다.

이러한 고통을 처음 느낀 것은 요양소에서였다. 의사도 아픔의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고 주사도 약도 듣지 않았다. 그때는 나 자신도 그 고통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고 의사 역시도 그 고통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떨리고 두렵다. 그 고통이 또다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로 했다. 하느님께서 내리시면 순명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한 명의 어린이라도 죽음으로부터 구해 낼 수 있다면! <1276.>

안녕하십니까? 메우고리에 1차 동기여러분!

피로가 좀 풀리셨는지요? 저는 성모님의 돌보심으로 성지 순례를 통하여 건강이 훨씬 좋아진 느낌입니다. 순례 동안에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전화를 주시어 기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메우고리에서와 같이 태양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으셨다 합니다. 또 메우고리에의 Website를 도와드리기 위해 Richmond 자매님들이 500불을 모으시어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사 예물과 총 봉헌금이 \$3,135이 되었습니다. 목표액은 6,000불입니다.

- 박창득 신부 -

첫번째 순례를 안내하면서...

“어머니, 당신의 사랑과 위로가 그리워 찾아오는 자녀들이오니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 하며 모든 것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떠난 순례 길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기쁨과 평화 속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남홍익 그레고리오 -

메우고리에 순례 동창님들께

메우고리에 순례 동기분들께 예수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컴 초보생이라서 메일을 받아보고 너무 기뻐어요.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아침 일찍 안부전화 주셔서 고맙구요. 집에 돌아 온 후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가득한지 마음이 생기가 나고 기쁩니다. 오자마자 메우고리에 추수편을 읽고 깊은 감동과 함께 그곳에 있음을 느낍니다. 몬시놀 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충고에 감사하며 동기분들 모두에게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이끄심이 충만하기를 기도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CA 김안나 -

박창득 몬시놀님과 메우고리에 동창생 형제 자매님들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자세한 메우고리에 묵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하여 은총을 받은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이곳 성령기도회에 가끔 참석하여 심령기도를 해 본 적이 있었습지만 그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잘 되지도 않았습지만, 몬시놀께서 심령기도를 소개해 주신 다음 다같이 기도했을 때, 갑자기 심령기도가 술술 자유로이 나와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저의 심령기도가 전과 달라져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메우고리에에 있는 프랑스의 Emmanuel 수녀님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그분의 저서 Medjugorije, 90's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승락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달에는 ‘메우고리에 추수’ 재판을 위해 한국에 갔다 돌아와서는 번역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몬시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저도 힘 달는대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성모님을 통한 주님의 구원사업에 또 정화의 시기를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안에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들이 맞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CA 김철석 찰스 올림 -

평화의 도구가 되자구요

한가족 같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헤어지기가 서운하지만 우리 모두 성서의 말씀을 양식삼아 성모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이웃과 공동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자구요. 또한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께도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메우고리에 순례 여정에 큰 힘이 되시길 우리 모두는 기도 드리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의 이 모든 시간들을 고이 간직하며 다시 또 만나기를 바라며 안녕히들 가십시오.

- 니. 그레이트넥 성당 정명희 크리스티나 -

사랑하늘 예수님과 성모님께

주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옵니까?
 혹시라도 당신의 사랑을 잊을까 이렇게 저희들을 천상의 잔치상에 초대 해 주셨나이까?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슴 가득히 축축히 느끼며 메말랐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느끼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영혼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시달려 끓주리며 허덕이고 있을 때에 이토록 귀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한없이 흐르는 감사의 눈물로 제 영혼을 씻어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메우고리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어느 하나도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워 제 마음 깊은 곳에 다 넣고싶은 마음으로 또 보속하며 성모님의 열심한 딸이 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도 십자가의 길 13처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척 당하시어 무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아픔이 가슴 속에 저며들었습니다.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우성칠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던 만 우리들의 어떤 아픔도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시신을 안은 성모님의 아픔과 그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성모님, 이제는 삶의 아픔을 인내하는 법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고 살면서 말씀드렸을 때,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시는 아름다운 장미향내에 제 몸과 마음은 기쁨에 흠뻑 취하며 큰 위로와 힘을 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울퉁 불퉁한 돌, 뾰족한 돌,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이 모든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넘겨야 할 과제를 말씀해 주시는 듯 하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성모님께 의탁하며 지낼 때, 천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산과 발현산에서의 평화로움, 맑은 공기와 구름도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는 듯 시시 각각으로 변해가고 오묘하고 깊은 신비가 감싸고

있는 새벽하늘, 저 멀리서 은은히 비추어지는 아침 햇살에 모든 것이 감사히 느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상 앞에서 조배드리고 내려올 때 세상에서 부딪쳐야 하는 삶들이 두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왔을 때, 용감하게 열심히 살아가거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재충전시켜 주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에 ‘예, 어머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나니 앞을 가리우는 눈물에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메우고리의 특징인 은혜로운 새벽부터 성모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닭의 울음조차 마음 깊이 담아 가렵니다. 성모님을 직접 뵈는 비스카와 이반카 두 분의 품에 안겼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치 성모님을 두 눈으로 보고 만난것 처럼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장엄한 미사와 성체조배, 치유예절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또한, 바닷가 가까운 데에 살면서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도취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는 바다는 하느님께서 만들고 보니 참 좋더라 하셨던 성서의 말씀이 정말 실감나며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고 느꼈습니다.

또 성모님의 숨결을 느끼는 듯, 저 바다를 향해 우리들의 삶속에 있는 걱정 보따리와 슬픈 마음, 상처를 주고 받은 마음과 미움을 한데 뭉쳐서 넓고 아름다운 바닷물에 희석되어서 맑고 평화스러운 마음이 되어 돌아오라고 청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영혼을 재충전 시켜주는 신비의 땅, 메우고리에에 우리 모두 가족단위로 다시 초대 해 주십시오 간청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순례길에 함께 해 주신 박창득 신부님과 수사님 수녀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명희 크리스티나 <뉴욕 L.I. 그레이트넥 성당>



성모님! 사랑합니다.

+ 찬미 예수님, 성모님

안녕하셔요? 형제, 자매님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포옹하며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며 우리 서로 항상 기억하며 기도 중에 만나자고 약속했던 우리들 매일 매일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글을 띄어 보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9박 10일의 순례는 너무나도 우리 모두에게 더 없이 값지고 귀한 나날들이었지요.

나 자신도 조금은 설레이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오면서 “이제 늘 미지근하게만 생각해 오던 내 신앙 생활에 화끈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소서.” 라는 기도와 “그렇게 오랜 세월 나를 지켜주신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을 부족한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 오게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메주고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분에 넘치는 은총을 너무 받아 저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들 곁에 항상 성모님이 계시는 것을 제 주위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직접 알리게 해 주신 성모님께 너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 직접 받아주시심을 알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음에 가슴이 벅찼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매일 매일은 정말로 천국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든 도움에 힘입어 그곳서 받은 은총과 사랑이 헛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참된 봉사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 만큼은 정말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못한 자식 조금 철들고 보니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신 분

이제 우리는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달란트를 모으며 실제로 다 같이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하루의 황혼이 끝날 무렵, 우리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순례에 함께 동행하신 신부님, 수녀님, 마리아, 아오스딩 형제님 내외분,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기뻐던 그 순간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성모님과 함께 같이 있다는 생각으로 두서없이 적은 글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2000년 4월 2일 필라델피아에서
황형권(암브로시오), 영순(베로니카) 드림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에서는 메주고리에 평화의 기도회가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본당의 기도회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필라 본당의 김승구 마르띠노 주임신부님께 감사드리며 황형권 암브로시오 회장님과 기도회원들께 축하드립니다.>

성체 신심 세미나 참가 신청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것이다.” - 요한 6,57-58 -

일시 : 2001년 5월 9일(수요일) ~ 5월 13일(일요일) - 4박 5일간

장소 : Sacred Heart Monastery : Cullman, Alabama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임언기 신부, 최광조 신부, 봉사자들

세미나 내용 : 성체와 성혈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대해 더 깊은 인식을 하게되어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쇠신하는 은총을 얻기 위함.

참가인원 : 50 명

참가비 : 250 달러

준비물 : 신청서를 받은 후 알려드립니다.

마감일자 : 2001년 4월 15일

신청서 보낼곳 : 최 프란치스코 신부 (Rev. Francisco Choi)

460 Park Terrace, Birmingham, AL. 35226 (Tel.205-823-6611)

신청방법 : 1) 신청서와 신청금 100달러를 동봉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Check는 “St. Luke Korean Catholic Church” 로 써 주십시오.)

2) 4월 22일 (일요일) 이후 취소 하시는 경우 신청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 윤희정 안젤라 (Tel. 256-880-6806)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 U.S.A의 메주고리에 순례에는 유럽의 오래되고 견고한 성곽도시로서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며 가톨릭 신앙을 고수해 온 신앙의 유적들이 많은 드브로넵과 스피리트에 있는 성지순례 관광이 각 1일씩 포함 되어 있으며 최신 숙박시설과 1일 3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 가겠느냐?

우리 모두는 “주님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을 사랑 하오며 당신만이 진리이심을 아웁니다.” 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과과의 일치를 이루고 나와 내 영혼과의 일치를, 그리고 이웃과의 일치를 이루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와 피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본당과 단체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일정을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게재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의
메우고리에 부활절 순례일정

“하느님을 굳게 믿어라.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1998년 5월 메시지 -

질문 : 온 세상이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될까요?

대답 : 네

질문 : 어떻게?

대답 : 이 메시지를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질문 :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시죠, 마리아?

대답 : 하느님께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씩을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병들고 굶주린 이들의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 이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여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만큼 그 마음 안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였다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질문 : 듣기만해도 아름다운 말씀이군요. 마리아, 그 충실한 자녀들이란 누구죠?

대답 :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죠.

<마리아의 인터뷰 에서>

성모님께서서는 20년 동안이나 발현하시어 이제는 죄에 대한 분별까지도 희박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흠에서 태어나 흠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하느님을 제일 첫 번째 자
리에 모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와 보속의 성주간과 부활절 피정을 메우고리에
에서 갖고자 합니다.

일 시 : 2001년 4월 7일부터 16일 (9박 10일)

지도 신부 : 안상인 요셉 신부(평화신문 미주지사장)

류해욱 신부(예수회)

비 용 : \$1390 - 뉴욕 JFK출발기준

(Dubrovnik 1일 순례도 포함됩니다.)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와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주문량

- (1)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합계 \$55 ()
 (2)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합계 \$110 ()
 (3)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합계 \$270 ()
 (4) 500부 이상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